

Banglatti

+ 비리시리 그린 프로젝트
350ppm 캠페인

BIRISIRI YMCA, BALGLADESH

June Report

2014 JUNE



김진경
황하람
신지혜
오효정

RAONATTI 11th Batch



I. 일정 소개

2014 JUNE



I . 일정 소개

일/SUN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토/SAT
1 ·현지교회 ·MOVIE CLUB	2 홍콩Y방문 (~8) ·다하파라 NFPE&Clinic	3 ·다하파라 NFPE ·홍콩&비리시리 youth레크리에이션	4 ·클리닝클럽 ·샤골디기 방문	5 환경의 날 ·다하파라 NFPE 수업 & 환경정리 ·강독 쌓기	6 350ppm ·차이나클레이방문 ·아시아3개국연대 나무 심기	7 ·강독 쌓기
8 ·현지교회 ·문화교류 프로그램 ·환송의 밤	9 ·다하파라 NFPE ·350ppm 준비	10 ·다하파라 NFPE ·MUSIC CLUB ·350ppm 준비	11 ·클리닝클럽 ·350ppm 준비	12 350ppm ·350ppm 세미나 ·2차 마을홍보	13 ·정리 나눔 ·350ppm캠페인 결과보고	14 ·ART CLUB ·350ppm캠페인 결과보고
15 ·현지교회 ·MOVIE CLUB	16 ·다하파라 NFPE&Clinic	17 ·다하파라 NFPE&Clinic ·MUSIC CLUB	18 ·클리닝클럽	19 ·다하파라 NFPE&Clinic	20 ·가족과의 추억만들기	21 ·ART CLUB
22 보그라Y(~27) ·현지교회 ·비리시리~사바르 차량이동	23 ·사바르~보그라 차량이동	24 ·보그라Y NFPE ·PUP 마켓 ·Gokul Medh	25 ·Pahal Khur ·문화교류프로그램	26 ·보그라~사바르 차량이동	27 ·사바르~비리시리 차량이동	28 ·ART CLUB
29 ·현지교회 ·MOVIE CLUB	30 ·다하파라 NFPE&Clinic					

June

2014 JUNE

II. 활동정리



1. 다하파라 NFPE & CLINIC
2. 비리시리 YOUTH & LOCAL



1. 다하파라

- (1) 다하파라 대안학교 (NFPE)
- (2) 다하파라 클리닉

1. 다하파라

(1) 다하파라 대안학교 (NFPE)

과목	진행상황
영어 (월, 김진경)	Class 1 : 기본회화와 과일, 동물 등 기본영어 읽기 말하기 쓰기 Class 2 : 일상회화 위주의 영어 읽기 연습
수학 (화, 황하람)	Class 1 : 방글라 숫자 읽고 쓰기 연습 Class 2 : 방글라 숫자 사칙연산 연습
미술 (목, 신지혜)	양초로 그림그리기, 학교 풍경그리기 등의 수업 진행 7월엔 우주상상화 그리기, 동물 일부분 사진 이어그리기 등의 수업을 통해 상상력 및 창의력 자극
음악 (화, 오효정)	'우리 모두 다같이 손뼉을', '반짝반짝 작은 별' (방글라 번역 버전) 노래하며 율동배우기
영어애니메이션 (월, 오효정)	코코몽, 도라 애니메이션 시청 및 표현 복습을 통해 영어에 익숙해지기



1. 다하파라

(1) 다하파라 대안학교 (NFPE)

* 교실 새단장

아이들의 미술작품들이 교실 이곳 저곳 정신없이 붙어있던 것을 말끔하게 정돈하였다. 또한 아이들을 위해 손수 만든 동물 그림카드를 부착하였다. 더욱 깔끔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 아이들을 생각하니 기쁘다.



1. 다하파라

(1) 다하파라 대안학교 (NFPE)

* 운동회

지난 4월 다하파라 학생들과 함께했던 피크닉에 이어, 7월 14일 (우천시 15일)에는 다하파라 NFPE 운동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진주지역훈련 때 배워 온 풍선아트를 활용하는 등 여러 활동적인 놀이와 게임을 계획 중이다.

운동회 후에는 아이들과 선생님, doctor didi, nurse didi 및 마을 분들과 함께 하는 점심식사가 준비되어있다. 운동회와 더불어 다하파라 아이들에게 전달할 소정의 선물도 준비할 예정이다. 귀국 전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인 만큼 알찬 프로그램으로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많이 쌓고 싶다.



1. 다하파라

(1) 다하파라 대안학교 (NFPE)

* 기부금

우리가 떠나기 전에 다하파라의 예쁜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 선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해왔었다. 이를 위해 4월부터 한 달간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모금활동을 펼쳤고, \$130의 적지 않은 돈이 모였다. 여기에 중간평가 때 감사하게도 KB 김병재 차장님께서 건네주신 \$50를 기부금에 합치기로 했고 총 \$180(=약 14130TK)를 아이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적지않은 금액인 만큼 이 기부금을 다하파라 아이들을 위해 최선의 방법으로 쓰기 위해 계속해서 무엇이 필요할지 관찰하며 팀 내 많은 나눔을 가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하파라 사람들의 의견이므로 사정을 잘 알고 계신 선생님들과 클리닉 선생님들, 비리시리Y 총장님과도 관련 미팅을 가졌다. 또한 얼마 전 NFPE 학부모 회의를 통해 부모님들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었다.

현재 약 25년 동안 사용하여 많이 낡고 손상된 책걸상 교체와 아이들의 우산을 구입할 예정이며 건적을 맞추는 단계이다.



1. 다하파라

(1) 다하파라 대안학교 (NFPE)



1. 다하파라

(2) 다하파라 클리닉

4월부터 진행하였던 다하파라 Mapping, surveying 작업을 마무리하고 인수인계를 준비할 시점이 되었다.

다하파라의 가구 수가 생각보다 많았고, 집집마다 일일이 방문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survey와 더불어 Mapping 이 진행되어야 했기에 애초에 계획했던 필라파라와 바담바리 지역은 마치지 못하게 되었다. 남은 7월 한달간 다하파라 지역 Survey와 Mapping을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12기에게 비교적 가구수가 적은 필라파라와 바담바리 지역을 인수인계할 예정이다.

다하파라 지역의 Survey가 끝나면 이전 기수들의 Survey 자료들을 총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남길 예정이며, 지도가 7월 8일 경에 마무리되면 대형 사이즈로 디지털 출력을 한 뒤 다하파라 마을과 비리시리 YMCA에 비치할 예정이다.





2. 비리시리

(1) Youth Club

(2) 홍콩 UNI YMCA와의 만남

(3) 보그라 YMCA 방문

+ 비리시리 그린 프로젝트

+ 350ppm 캠페인

2. 비리시리

(1) Youth Club

Music Club, Art Club, Movie Club 모두 매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Art club은 350ppm 캠페인 활동의 일환으로써 과자봉지를 활용해 나비를 만들고, 재활용품을 활용해 클레이 작품을 만드는 등 2차 마을 홍보 시 함께 오픈할 갤러리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했다. 단순한 미술 활동이 아닌 의미 있는 작품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Youth들 모두 보람찬 클럽활동이었다.

Music Club은 클럽활동 중에 노래를 연습하고 간단한 안무를 준비하여 다음달 7월 6일 Baptist Church에서 특송을 하기로 하였다. 라온아띠와 Youth들이 함께 지역커뮤니티의 구성원들 앞에서 젊은 청년들의 힘찬 열정을 선보일 예정이다.





2. 비리시리

- (1) Youth Club
- (2) 홍콩 UNI YMCA와의 만남
- (3) 보그라 YMCA 방문

+ 비리시리 그린 프로젝트

+ 350ppm 캠페인

2. 비리시리

(2) 홍콩 UNI YMCA와의 만남

6월 2일, 홍콩 3개 대학이 연합한 UNI YMCA에서 30명 정도의 청년들이 비리시리를 방문하여 약 일주일 동안 강둑 쌓기를 비롯한 문화 교류 및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돌아갔다. 현지 Youth들이 진행 volunteer로 활동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팀도 많은 활동들에 동참하게 되었다.

특히 강둑 쌓기 활동은 모든 작업이 맨 손으로 진행되는 만큼 몇 일에 걸쳐 진행되는 고되고 힘든 작업이었지만 고생한 만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곳은 우기가 되면 강물이 넘쳐 마을에 많은 피해를 주는데, 때마침 이번에 강둑을 쌓자마자 폭우가 쏟아져 강둑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다. 우리가 열심히 흘린 땀이 지역커뮤니티에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음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기쁘고 보람찬 순간이었다. (김진경 단원의 작업하는 모습이 지역신문에 실리기도 했다.)



2. 비리시리

(2) 홍콩 UNI YMCA와의 만남

홍콩 친구들과 함께 비리시리 주변의 명소인 Chinaclay, Ranikong을 방문하기도 했다. 멋진 경치를 마음껏 감상하며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또한 마지막 날에는 Cultural Academy에서 주관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멋진 춤과 노래에 빠져 모두가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캠프파이어로 장식된 마지막 밤에는 홍콩과 방글라데시의 게임과 춤을 배우며 서로의 몸과 마음을 더욱 가깝게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새로운 만남 속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언어를 초월한 따뜻한 교감을 나눌 수 있었던 날들이었다.



2. 비리시리

(2) 홍콩 UNI YMCA와의 만남

〈돌아보며〉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팀은 단기봉사단을 받아들이는 현지인의 입장이 되어볼 수 있었다. 아무래도 짧은 기간이기에 봉사단이 주체가 되어 현지인을 객체화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이 현지인들에게 신선한 경험으로 기억되고 또한 강독과 같이 실제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단기봉사 또한 중,장기봉사와 마찬가지로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간이 짧고 길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지와 현지인을 대하는 봉사자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2. 비리시리

(2) 홍콩 UNI YMCA와의 만남





2. 비리시리

- (1) Youth Club
- (2) 홍콩 UNI YMCA와의 만남
- (3) 보그라 YMCA 방문

+ 비리시리 그린 프로젝트
+ 350ppm 캠페인

2. 비리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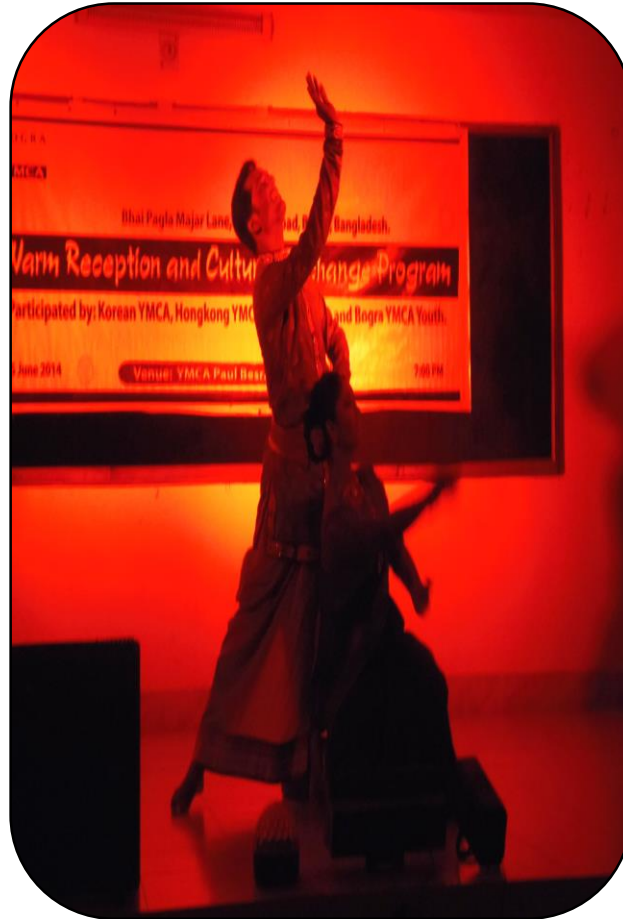
(3) 보그라 YMCA 방문

6월 22일부터 27일에 걸쳐 보그라를 방문하는 일정을 가졌다. 비리시리가 아닌 또다른 방글라데시를 경험함과 동시에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보그라 YMCA를 방문하기 위함이었다. 비리시리에서 보그라까지의 여정은 끝나지 않는 도로여행이었다. 도로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비리시리에서 사바르까지 약 8시간, 사바르에서 보그라까지 다시 약 5시간에 이르는 거리를 차로 이동해야 했는데 우리와 동행한 4명의 Youth들이 두통과 멀미로 너무 힘들어해 마음이 아팠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보그라는 역사와 도이(요거트의 일종)의 도시였다. 우리는 Behula Lokkhindor, Moha Sthanghor, Pahar Pur 등 유명한 역사 유적지와 박물관들을 방문하기도 하고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유명한 보그라 도이를 먹기도 했다. 비리시리에서 살고있는 우리지만 어떻게 보면 비리시리는 한국의 강원도 산골과도 같은 느낌이다. 다시 말해 비리시리가 모든 방글라데시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보그라 방문은 우리가 방글라데시를 더욱 깊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2. 비리시리

(3) 보그라 YMCA 방문



2. 비리시리

(3) 보그라 YMCA 방문

보그라 YMCA는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규모가 큰 만큼 약 2200명의 학생이 재학중인 Public High School과 Hostel을 비롯해 매우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NFPE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는 보그라 NFPE도 방문했다. 다하파라 NFPE에서 음악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오효정 단원이 보그라 NFPE 학생들과 함께 약 20분 정도 방글라로 노래수업을 진행했는데, 아이들의 푹망푹망한 눈빛과 적극적인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다. 한편 보그라 YMCA가 관리하는 Public High School과는 너무 상이한 NFPE의 열악한 모습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NFPE의 지원상황이 궁금해지기도 했다.



2. 비리시리

(3) 보그라 YMCA 방문

〈돌아보며〉

일주일 간의 보그라 여행을 통해 Youth들과 함께 오랜 시간 함께 차를 타고, 명소를 돌아다니고, 문화프로그램 노래무대를 준비하는 등 좋은 추억을 쌓으며 더욱 가까워진 느낌이다.

보그라 방문은 또다른 방글라데시를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비리시리에서의 일상과는 다른 색다른 경험이라는 점에서 즐겁고 흥미로운 여행이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평화롭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활동지역 비리시리를 더욱 아끼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회도 되었다.





비리시리 그린프로젝트
Birisiri Green Project

비리시리 그린 프로젝트

클리닝 클럽

비리시리 그린 프로젝트는 클리닝 클럽을 중심으로 지속성 있게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아침 7시,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아름다운 비리시리를 만듭시다.'라는 문구가 적힌 노란 띠를 두르고 Youth들과 함께 쓰레기를 주우며 쓰레기통 사용에 대한 홍보를 계속해나가고 있다. 특히 6월 둘째 주에는 홍콩 UNI YMCA 친구들도 이슈를 인지하고 우리의 클리닝 클럽에 동참하였다.



7월 1일 클리닝클럽

비리시리 그린 프로젝트

클리닝 클럽

2014 JUNE



RAONATTI 11th Batch
BIRISIRI YMCA, BANGLADESH

비리시리 그린 프로젝트

쓰레기통 추가 설치 ①

지난 달 Utrail 시장 위원회에 전달했던 총 6개의 쓰레기통은 주로 시장 남쪽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클리닝 클럽 등을 통해 쓰레기통 사용을 홍보하던 중 시장 북쪽 부근 상인들로부터 쓰레기통의 추가설치를 요청 받았다.

추가로 설치할 쓰레기통을 우리 측에서 지원할 것인지 시장 위원회 측에서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고, 시장 위원회에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설치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했다.

쓰레기통 추가 설치 ②

그러나 우리는 이들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쓰레기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은 금액이라도 이들이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이리저리 고민했다. 현재 시장위원회 측에서 쓰레기통 하나를 조달하거나, 미소한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방법을 서로 논의 중이다.

또한 시장 위원회를 대상으로 그린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점심을 대접하는 기회를 갖기로 했다. 덧붙여 각 가게에 작은 쓰레기통을 비치하여(모금액 사용)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

비리시리 그린 프로젝트

나비 효과

비리시리 YMCA 사무총장님은 이곳 비리시리에 쓰레기를 이슈화시켜 실제 쓰레기통을 설치한 사례는 우리가 처음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해주셨다. 그러나 쓰레기를 길 여기저기에 아무렇게나 버리는 습관이 결코 단기간에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간혹 클리닝 클럽을 함께 하는 Youth들조차 아직 길에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다음 슬라이드에 계속)

비리시리 그린 프로젝트

나비 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변화들은 나타나고 있다. 이미 6개의 쓰레기통을 설치한 Utrail 시장에서 더 많은 쓰레기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설치를 요청했다. 또한 Utrail 시장에서 자전거로 약 10분 정도 떨어진 Shimultoly 시장에서도 쓰레기통 설치를 요청하여 7월 중으로 설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의 비리시리 그린 프로젝트가 입소문을 타서 Shimultoly 시장을 비롯해 Durgapur 시장 등에서도 쓰레기 문제와 쓰레기통 설치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YWCA에서도 우리의 움직임에 동참하고자 시장 클리닝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 삶의 터전인 비리시리 Utrail 시장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시작한 프로젝트가 우리도 모르게 퍼져나가고 있음이 참 놀랍다. 이러한 나비효과가 지속적이었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이들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었으면 하는 욕심도 갖게 된다.

350PPM 캠페인 in Bangladesh

350PPM 캠페인

2차 마을홍보 (5월 30일)

4월의 1차 마을 홍보에 이어 Utrail 시장에서 350ppm 캠페인의 2차 마을홍보가 이루어졌다. 큰 화이트보드에 350ppm이 무엇인지, 지구온난화가 왜 위험한지와 같은 알림 자료를 만들어 전시하고 홍보하였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Art Club에서 만든 과자봉지 나비와 재활용품 클레이 작품도 갤러리를 열어 전시하였다. 이번 홍보의 준비부터 실천까지 Youth멤버들이 함께 했기에 더 의미있었다.

(계속)



350PPM 캠페인

2차 마을홍보 (5월 30일)

동시에 벼룩시장을 열어 모금활동을 진행하였는데 우리가 한국에서 준비해온 여러 다양한 물건들(헌옷, 가방, 액세서리, 학용품 등)을 판매한 금액이 약 3059TK나 되었다. 누군가에게 필요없는 물건이 다시 쓰이는 벼룩시장은 350ppm 캠페인의 한 예시로 설치한 것이었는데, 이는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데도 한몫을 해서 캠페인 홍보에 큰 도움이 되었다.



350PPM 캠페인

2차 마을홍보 (5월 30일)
준비 과정



2014 JUNE

350PPM 캠페인

아시아 3개국 연대 나무심기 (6월 8일)

홍콩, 방글라데시, 한국의 아시아 3개국 청년들이 연대하여 빈 공터에 10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이 날은 세계 YMCA 설립 기념일이기도 했기 때문에 설립기념과 더불어 나무심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나무를 심기에 앞서 홍콩과 방글라데시 청년들에게 350ppm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략적인 안내와 더불어 오늘의 나무심기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각자의 나라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이슈를 환기하고 사회를 바꿔나갈 3개국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



350PPM 캠페인

환경의 날 (6월 12일)
세미나 & 3차 마을홍보

환경의 날은 6월 5일이지만 각종 일정으로 인해 6월 12일에 환경의 날 활동을 진행하였다. 오전에는 비리시리 Youth들과 함께 350ppm 세미나를 진행하였는데, 사무총장님과 신지혜 단원의 모두발언과 더불어 그룹토론, 복극곰 게임을 진행했다. 또한 탄소배출을 낮추기 위한 생활 속 실천에 약속지장을 찍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오후에는 다함께 Utrail 시장에 나가 3차 마을홍보를 진행하였다. 한편에는 2차 마을홍보 당시 열심히 만들어 사용했던 화이트보드를 전시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오전에 Youth들과 했던 실천도장을 찍는 활동을 진행했다.



350PPM 캠페인

환경의 날 (6월 12일)
세미나 & 3차 마을홍보

2014 JUNE



350PPM in Bangladesh

다하파라 수업

4월 중
다하파라 NFPE

음악: 폐품 활용한 악기 연주
미술: 에코백 만들기

1차 마을 홍보

4월 14일

비리시리

Bangla New Year's Day
페이스페인팅을 통한 350ppm
홍보 및 모금활동

공교육

5월 7일, 11일

Ideal학교 class 8,9,10

지구온난화와 350ppm캠페인
: 북극곰 체험활동,
환경선언문, 나만의 식목일
정하기 등

Youth Club

5월 24일

Youth Art Club

2차 마을홍보 갤러리 준비
과자봉지 나비 만들기
클레이 작품 만들기

2차 마을 홍보

5월 30일

Utrail 시장

350ppm 캠페인
홍보 및 모금활동
: Art Club 갤러리
Flee Market 부스

환경의 날

6월 12일

비리시리Y & Utrail시장

오전: Youth 350ppm 세미나
오후: 3차 마을 홍보
350ppm 안내판 전시
및 실천도장 찍기

아시아 3개국 연대 나무심기

6월 6일

비리시리

홍콩, 방글라데시, 한국
청년들의 나무 100그루
심기

350PPM

in Bangladesh



2014 JUNE

III. 방글라딕 고민이야기



RAONATTI 11th Batch

BIRISIRI YMCA, BANGLADESH

방글라띠 고민이야기

1. 다하파라 어린이

2. 작은 쓰레기통 전달방법

3. YOUTH CLUB 지속성

4. 잘 써야 돈이지!

5. 비리시리 핫! 이슈

2014 JUNE

RAONATTI 11th Batch
BIRISIRI YMCA, BANGLADESH

방글라딕 고민이야기

1. 다하파라 어린이

다하파라 NFPE 학생 중 한 명이 나무에서 떨어져 오른팔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수업시간 외에 있었던 사고였고 육안으로는 다쳤는지 확인이 불가능 했기에 우리 팀은 그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사고 며칠 뒤, 다하파라 선생님께서 아이의 팔 뼈를 다쳤고, 할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아이 집에 병원비(500TK, 한화 약 6000원)가 없어 치료받지 못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아이가 팔을 못쓰는 상황이어서 치료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곳 총장님께 상황을 전달했고, 아이의 할아버지께 동의를 구한 뒤 함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치료비는 Y측에서 부담하였고, X-ray 결과 다행히 크게 다친 것은 아니어서 모두 한 시름 놓았던 사건이었다. 다하파라 서베이를 하다 보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팔이나 다리를 못 쓰는 아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더욱 가슴이 철렁하기도 했다.

사실 학교에서 다친 것이 아니기에 치료비를 Y에서 부담할 의무는 없었다. 그러나 NFPE뿐만 아니라 다하파라 마을 전체가 비리시리 Y의 프로젝트 사이트임을 생각해볼 때, NFPE 아이들의 긴급 의료비와 관련한 시스템이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대해 총장님과 나눔 시간을 가졌는데, 과거 다하파라 마을에서 우리네 '계'와 비슷한 것을 시도해보았다고 한다. 평소에 돈을 같이 모았다가 긴급한 돈이 필요할 때 쓰는 방식이었었는데 사람들이 쓴 돈을 잘 갚지 않아 실패로 돌아갔다고 했다. 저축을 잘 하지 않는 마을 사람들이 이같이 긴급한 상황에 금전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 안타까웠다.

방글라띠 고민이야기

2. 작은 쓰레기통 전달방법

방글라띠 그린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5월 Utrail 시장에 6개의 큰 쓰레기통을 설치하였었다. 설치 후 Durgapur, Shimultoly 등 주변 시장에서 쓰레기통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다. 실제로 Shimultoly에서는 쓰레기통 설치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그린프로젝트’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 우리 팀은 쓰레기통 추가 설치의 필요성을 느꼈고 시장의 요지에 설치한 큰 쓰레기통 뿐만 아니라 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쓰레기통의 필요성을 느꼈다. 고민 끝에 1차, 2차 마을홍보 때 로컬커뮤니티를 위해 모금했던 자금으로 약 30개 정도의 작은 쓰레기통을 가게마다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작은 쓰레기통은 ‘그린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사이트인 Utrail 시장 가게들 중 쓰레기를 주로 배출하는 가게를 조사하여 전달할 예정이다.

각 가게 주인이 작은 쓰레기통에 모아진 쓰레기들을 근처의 큰 쓰레기통에 비웠으면 하는 것이 우리 팀의 바람이다. 하지만 우리가 구매한 쓰레기통을 어떠한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또 어떻게 로컬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실천을 촉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지와 같은 방법론을 고민하고 있다. 이 문제는 시장 위원회 위원장님, YMCA 사무총장님과 함께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논의한 뒤 전달할 것이다.

방글라띠 고민이야기

3. YOUTH CLUB 지속성

지금까지의 전례를 보면 라온아띠가 교체되는 시기에 라온아띠와 Youth들이 함께했던 활동들은 안타깝게도 지속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팀은 우리의 활동이 종결되는 7월 18일 이후 12기가 이곳 비리시리에 오기까지의 기간 동안 우리가 약 5개월 동안 Youth들과 이곳에서 지속해왔던 활동들이 꼭 중단될까 매우 걱정된다. 우리 팀이 활동 내내 머리를 싸매고 끊임없이 고민했던 것이 바로 지속성이기 때문에 라온아띠 멤버들이 없는 8월 한달 동안의 공백기에도 Youth Club이 Youth들 자발적으로 꾸준히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 팀은 7월 한 달을 각 클럽마다 뽑았던 현지 Club keeper가 이끌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유도할 예정이다. 7월 한달 간 라온아띠가 아닌 현지 C.k가 이끄는 Youth Club을 우리들 또한 Youth 멤버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작은 도움을 주는 역할로만 있자는 것이 우리 팀의 생각이다. 하지만 요즘 들어 잦은 Youth들의 다양한 외부 스케줄 등을 생각해 볼 때, 라온아띠의 Youth Club이 정상적으로 이어져갈지에 대한 의문은 우리 기수의 가장 큰 걱정 거리이다.

2014 JUNE

RAONATTI 11th Batch
BIRISIRI YMCA, BANGLADESH

방글라띠 고민이야기

4. 잘 써야 돈이지!

우리 팀은 여러 차례 모금을 통해 모은 기부금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로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사용하기로 했다.

* 해피빈 기부금 130달러 + KB 김병재 차장님 기부금 50달러 = 180달러 (14130다카)

-> 다하파라 어린이를 위해 사용

* 1차 마을홍보 355다카 + 2차 마을홍보 3309다카 = 3864다카

-> 비리시리 그린프로젝트를 위한 작은 쓰레기통 구입비로 사용

(당초 350PPM 캠페인을 위한 나무심기 활동의 나무 구입비로 사용결정.

그러나, 비리시리 YMCA의 지원으로 사용처 변경)

방글라띠 고민이야기

5. 비리시리 핫! 이슈

한창 과일이 익는 요즘, 방글라데시는 ‘포르말린’이라는 방부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것을 과일에 과다하게 뿌리거나, 심지어 우유에도 뿌리는 등으로 벌써 방글라데시에서는 5명의 사람이 죽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지 고민하다가 비리시리 YMCA 총장님께 나눔을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총장님께서 얼마 전 포르말린에 대해 정부에서 엄격한 법을 제정하였고, 비리시리에 있는 시장들은 포르말린이 이미 뿌려진 상태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포르말린 제공자에 대해 이곳에서 캠페인을 펼치기는 다소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덧붙여 현재 비리시리에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 말씀해주셨는데, 알코올 중독과 ‘댄디’라는 환각제에 관련된 것이었다. 사실 알코올 중독에 관한 것은 4개월 동안 살면서 또 Youth 세미나를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 생소하지는 않았다. 청소년들이 알코올에 중독되어 학업에 소홀해지고 진로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것, 또한 알코올 중독된 부모가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 등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었다. 이곳은 알코올을 금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으므로 오히려 어두운 경로를 통해 무분별한 알코올 섭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게다가 6~8세 정도의 아이들이 환각성이 있는 ‘댄디’라는 나무즙을 끓여 흡입하고 있는데 이것이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았다.

이에 대해 캠페인, 진로교육 등과 같은 활동을 전개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시간이 다 되어버린 것이 아쉽기만 하다. 전기수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12기 인수인계를 통해 잘 전달해야겠다.

2014 JUNE

RAONATTI 11th Batch
BIRISIRI YMCA, BANGLADESH

2014 JUNE

IV . 단원소감



Ajoy
Shojol
Dipa
Shiuli

Ajoy

/ shopno; 꿈

우기의 이른 시작... 이도 분명 350PPM의 영향이겠지, 생각하면서 6월의 삶을 시작한다. 우리가 진행하는 그린프로젝트. 정말 사소한 하나의 변화의 씨앗이 어느덧 무럭무럭 자라나 Utrail 뿐만 아니라 Durgapur, Shimultoly 등 많은 곳에서 이슈가 되어가고 있다. YWCA도 우리의 클리닝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바꿔버릴 기적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줄 작은 희망 한줌이면 족하다는 것을 보았다. 이 달의 시작과 동시에 아시아의 또 다른 나라의 친구들이 우리 동네를 방문한다. 홍콩에서 20명의 캠퍼스 YMCA 청년들이 봉사를 하러 왔다. 언제나 그렇듯 새로운 만남은 항상 신선하고 재미있다. 20가지의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과 일주일을 보낸다. 친구를 통해 나를 본다고 하였던가, 홍콩 친구들이 스푼과 포크로 어렵사리 치킨 커리를 뜯어먹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덧 능숙하게 손으로 살과 뼈를 발라먹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니 벌써 방글라데시 사람이 되어있는 듯 보인다. 비리시리 친구들과 함께 앉아서 똑같이 손으로 밥을 먹고, 마시고, 놀고, 웃고... 홍콩 친구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의미로 그들에게 도전이 되지 않았을까, 감히 생각해본다.

2014 JUNE



Ajoy

/ shopno; 꿈

6월 말의 Bogra 여행도 새로운 재미를 느꼈다. 비리시리 Youth멤버들과 함께 하는 여행, 색다른 풍경, 색다른 음식, 색다른 묘미들이 있다. 여행이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이 더욱 즐거운 것이다. 이제 방글라데시에서의 삶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조금해질 법도 한데,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 여기가 내 집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누군가 나에게 한국의 삶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어보았지만, 나에게 또 다른 삶이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도 내 집이고, 한국에 간다고 한들 여기서의 모든 생활이 모두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는 것도 아니고, 비리시리에서 나를 사랑해주던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도 아니니 급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오늘도 나는 모두와 함께하는 꿈을 꾸다. 하룻밤의 꿈이 아닌 평생을 꾸어갈 꿈의 한 조각.

2014 JUNE



Shojol

/ 감사 (Dhonnnyabad)

#여느 때와 똑같이 아침식사를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행복하다. 할머니와 엄마가 해주시는 따뜻한 아침, 더 먹으라며 접시가 넘치도록 음식을 덜어주시는 아빠, 따뜻한 밀크티를 대령해주는 너무 예쁜 여동생 니또.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소소한 이 행복이 참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지던 날, 팬티바람으로 집 마당에 나가 비를 흠뻑 맞았습니다. 기분 좋게 얼굴을 적시던 비. 양철 슬레이트와 대나무로 엮은 지붕 아래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두 손으로 받아보기도 하고, 두 눈을 감고 양 팔을 벌려 빗소리와 빗내음을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방글라데시에 도착해 공항을 빠져 나오던 처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다시 올 수 있을까? 아니, 오고 싶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조건없이 나를 가족으로 친구로 이웃으로 받아들여준 사람들. 참 감사합니다. 방글라데시 그것도 비리시리에 오게 된 것은 큰 축복입니다. 꼭 다시 올겁니다.



2014 JUNE

Shojol

/ 감사 (Dhonnnyabad)

#자전거를 타고 씬상강을 지나는데 정말 도저히 입을 다물지 못할 해질녘의 모습을 보며 순간 제목이 기억나지 않는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영화 속 저명한 사진작가는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북극여우가 나타난 찰나의 순간에 사진을 찍지 않고는 주인공에게 이런 대사를 했습니다. “때론 사진기를 드는 그 찰나의 순간조차 아까울 만큼 멋진 때가 있다. 이건 내가 나를 위해 주는 선물이다.” 저는 이곳 비리시리에서 나를 위한 선물을 참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다하파라에서 서베이를 하며 만났던 9살 소녀 사디아가 생각납니다. 왼쪽 손은 사용할 수가 없고, 왼쪽 다리와 왼쪽 눈의 시력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엄마가 등에 업고 있던 사디아를 떨어뜨렸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인 치료조차 힘든 이곳 다하파라. 한국에서는 어림도 없었을 일들. 괜스레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참 감사합니다.



2014 JUNE

Dipa

/ Present

마지막 달이라니...세상에...말이 안 나온다...

비리시리에서의 모든 날들을 날짜 별로 모조리 머릿속에 기억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다. 나의 뇌가 원망스럽다.

이 모든 나날들이 '라운아피 국제자원활동'이라는 '한 단어'로만 압축되는 것 또한 싫다. 그만큼 이 곳에서는 모든 하루하루가 특별하고 소중했다.

요즘 들어 한층 더 푸르러진 비리시리는 어디를 가든 멋진 장관이 펼쳐진다.

이 모든 풍경을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매일매일 눈에 담고, 담고, 또 담는다. 이제 내게 너무도 편안하고 익숙해진 이 곳을 떠나는 데는 많은 용기가 필요할 것 같다.

4개월 동안 함께했던 다하파라의 아이들, 비리시리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을 볼 때면 헤어질 날이 자꾸만 떠올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된다.

이 곳의 모든 사람들이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고 항상 웃는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다. 상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싶은 요즘이다.

한달 남짓 남은 이 시점, 떠나는 날까지 지금 머무르고 있는 이곳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최선을 다해 사랑할 것이다.



2014 JUNE

Shiuli

/ 그림

텔레비전 앞 아바 전용자리에 벌러덩 드러누울 수 있는 잠이 되었는데 고작 20여일 정도 남았다고 한다.

요즘 이 곳은 우기다. 우기는 우기만의 매력이 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천둥소리를 곳곳이 견디면, 정말 만화 같은 하늘이 거짓말처럼 펼쳐지곤 한다. 하늘 뿐이 아니다. 세찬 비가 지나고 따사로운 해가 뜨면, 지면의 모든 생물은 가장 아름다운 색깔을 닦아 뽐낸다.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도 끄떡없이 서 있다가 해가 뜨면 아무 일 없었던 듯 반짝거리는 브리스티나무가 왜 이리 사랑스러운지.

지난 4개월 동안의 각별한 순간들에 보답하는 길은, 남은 한 달까지 충실히 이곳에 집중하며 사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고 있다. 미소를 머금은 듯 예쁜 하늘과 나무들처럼, 마지막까지 좋은 느낌을 주는 사람이고 싶다.



2014 JUNE

2014 JUNE



+ Photo Time

RAONATTI 11th Batch

BIRISIRI YMCA, BALGLADESH









<350ppm 캠페인>



환경의 날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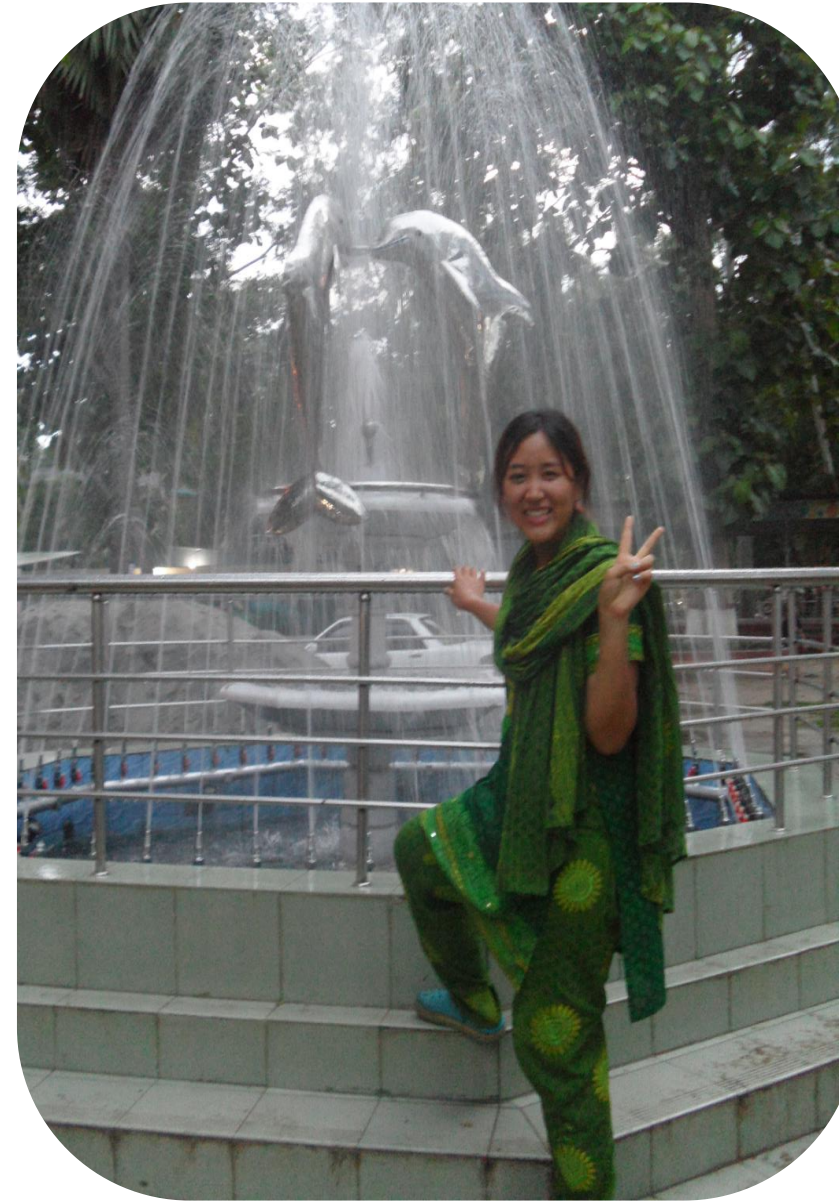


〈06.22~06.27 보그라 YMCA 방문〉













<2014 FIFA WorldCup!>



<We ♡ Birisiri !>



2014 JUNE

Aty
Sho
Dipa
Shil

Abar Dekha Hobe !

RAONATTI 11th Batch